

2012 교수법 소책자

**Hansung
Educare**



여는 글

교육개발연구원(CTL :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은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법을 소개하여 학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며, 동시에 교수님들에게 더 나은 교수법을 소개하여 교수(Teaching)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2005년 8월에 개원을 하였지만 그 동안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지 못하다가 최근 대학교육현장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개발에 대한 중요성인식에 발맞추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교육개발연구원에서는 수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후배를 멘토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한성튜터링 프로그램’ , 1:1 멘토 제도를 통한 외국인 학생의 기초학습을 돕는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의 축으로, 교수님의 교수법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EDUCARE’ 입니다. 본 소책자는 강의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교수님들의 강의 비법을 정리하고 다른 교수님들께 전달, 소개하여 전체 교수님의 강의 방법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본 소책자를 참고하시어 각자의 강의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연구원의 또 다른 주요한 활동으로 대학교육평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신임교원 연수교육’ 이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교수법을 접하실 수 있는 ‘교수법 워크숍(연수프로그램)’ 이 있으며, 특히 본인의 강의 습관 중에서 좋지 않은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본인의 강의를 비디오로 촬영하여 이를 교육전문 컨설턴트에게 분석을 의뢰하는 ‘강의 컨설팅’ 프로그램도 이제 막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활동 들이 교수님의 교수(teaching)활동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유사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한성대학교 교육개발연구원
원장 노재환

1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노하우

계희원 교수 - 공과대학 정보시스템공학과

“좋은 강의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각자 배울 점이 있는 강의” ...08p

백성준 교수 -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좋은 강의란 수강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생각했고 변했고 남아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강의” ...12p

안현주 교수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좋은 강의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강의” ...18p

윤진아 교수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좋은 강의란 교수-학생 간의 소통과 공감에 있는 강의” ...24p

황혜성 교수 -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좋은 강의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 하게 만드는 강의” ...30p

2부

효과적인 영어강의 노하우 (2012 MSU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 수료 후기)

김용석 교수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영어강의의 일차적 목표는 학생들의 영어 사용을 유도하는 것” ...38p

김일민 교수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공부시키는 것도 교수자의 능력” ...42p

이병은 교수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영어강의의 한계를 극복할 것” ...46p

최경희 교수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다양한 교수법 및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나은 영어강의가 될 수 있다” ...50p

한성대학교 교육개발연구원 프로그램 안내 ...57p

1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노하우

- 계획원 교수 - 공과대학 정보시스템공학과
- 백성준 교수 -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 안현주 교수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 윤진아 교수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 황혜성 교수 -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정보시스템공학과
계희원 교수님

“좋은 강의란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각자
배울 점이 있는 강의” 이다.”

[Key word]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

1. 잘 정리된 상태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2. 강의는 수업 간, 다른 과목 간의 맥락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여 포괄적 이해를 돕습니다.
3. 학생 피드백을 적극 받아 반영합니다.
4. 학생 피드백 자체가 생길 수 있도록 수업 내외로 격려합니다.

정보시스템공학과
계획원 교수님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각자 배울점이 있는 강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정된 강의 시간에 다양한 학생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선택, 집중, 포기해야 합니다. 이때, 대다수 학생이 제 강의에서 배울 점이 있었다고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초 수준의 과제라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할 의지가 부족한 학생들은 최소한 이 과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목인지 이해하고, 나중에 관심이 생겼을 때,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되겠다는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특색은 별로 없고, 다른 교수법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관점에서 제 교수법의 상대적인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의 주도권 관점: 강의를 교수가 주도할 수도 있고, 학생에게 맞추어 갈 수도 있고 그 중간 어디에서 절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주도적 학습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일정 진도를 소화해야 하는 교과목 특성도 있고, 학생들의 주도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교수 주도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대신 학생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강의 중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수업 중 반응을 보고 즉석에서 실습 비중을 늘린다든가, 진도를 조절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식으로 수업 당시 상황에 맞추어 결정합니다.

강의 수준 관점: 어렵지만 많은 학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수 학생에 맞추어 진행하려면 깊이 있는 내용을 일부 생략해야 하고, 범위도 일부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감수하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우수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목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전 과제식의 느낌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자율 학습을 독려합니다. 그 결과는 수업



외의 질문으로 해결합니다.

강의 내용 관점: 강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교과목에 접근하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이론이 어려운 과목에서 학생들은 쉽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때, 이 과목 이론이 어려운 것이 맞다(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 이해가 어렵고, 저 단락은 암기량이 많아 어려울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부할 것이라는 설명을 간혹 덧붙입니다. 강의 내용을 공부하는 데 있어, 학생들을 독촉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같이 공부하는 동료의 느낌으로 교과목의 공략 방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강의 기술 관점: 기술적으로 보면 강의 시작 몇 분 전에 강의실에 들어가서 학생들과 한담을 나누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앉자리 앉은 학생들은 학업 의욕이 강하고 교수와의 대화에 거리낌이 적습니다. 일상적인 영화, 스포츠 이야기도 나누다가 이전에 제시한 과제가 어려웠는지, 지난 시간 진도가 빠르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학생 의견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직후 몇 분 정도를 할애하여, 지난 시간 수업 내용을 간단히 구두로 요약합니다. 학생들이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해오길 바라지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두 요약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나 강의자료 없는 구두 요약을 들려주어, 학생들에게 그 정도 내용은 나도 암기/이해해야 하겠다는 무언의 압력을 주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Q3.

수업 이외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업 외의 상호작용은 학생 진로 상담 등의 역할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번 교수법에 대한 기고문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수업을 더 잘하려는 방법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적을까 합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억지로 외우는 대신, 출석을 천천히 얼굴을 확인하면서 부르고 자연스럽게 이름을 익히는 편입니다. 수업 외에서 학생들과 마주치면 이름을 부르고, 수업 전후로 들었던 몇몇 화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실례될 수도 있으나, 다른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강의에 대해서도 묻고는 하는데, 다른 과목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적인 공학도로서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할 때 효과적입니다. 수업 중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외 질문도 권장합니다. 앞서 강의 수준 관점에 관한 내용에서, 어려운 부분은 도전과제 식으로 학생들에게 부여한다고 했는데, 도전적이고 우수한 학생들이 자습하다가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만듭니다. 수업시간 외 질문을 받다 보면, 학생들이 다른 교과목에서 생긴 질문을 가져와 물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제 관점에서 일단 답을 해 주고, 정확한 관점과 방향은 해당 교수님께 얻도록 지도합니다.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학생과의 교감을 유도하기 위해, 학기 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따져 학생경력만 10년 이상의 베테랑 수강생이라, 각 교과목의 분위기를 학기 초에 민감하게





파악합니다. 학기 초에 ‘이 과목은 시간 때우는 과목’ 이라고 학생들에게 인식되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각 학생은 교과목의 분위기가 자유로운지, 필기에 집중해야 하는지, 설명을 잘 들어야 하는지, 참여도가 중요한지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추어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학기 초에 “이 과목은 어떤 내용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 어떤 쉬운 내용도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노력은 필요하다.” 고 자주 언급해서 적극적인 분위기로 유도합니다.

교과목 난이도 조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쉽게 해야 할지, 교과목의 목적을 생각해서 일정 난이도 이상을 유지할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학기 종료 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운 과목에 대해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 하는 동시에 도전의식을 갖기도 하며 끝난 후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매 학기 학생 피드백을 고려해서 다음연도에 미세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을 독려하는 것이 매 학기 어렵습니다. 공학 특성상 특정 과목에서 무작정 포기를 해버리는 학생이 일부 존재합니다. 아주 쉬운 도전 과제를 학기 초에 제공하고, 질문을 유도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통한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적으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로 설정하고 싶습니다만, 그 단계를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대신 좋은 교수자의 역할에 대한 저의 앞서 반복한 내용을 정리하면 관점으로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잘 정리된 상태의 강의를 제공합니다.

2. 강의는 수업 간, 다른 과목 간의 맥락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여 포괄적 이해를 돕습니다.
3. 학생 피드백을 적극 받아 반영합니다.
4. 학생 피드백 자체가 생길 수 있도록 수업 내외로 격려합니다.

어렵지만 많은 학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다수 학생에 맞추어 진행하려면 깊이 있는 내용을 일부 생략해야 하고, 범위도 일부 축소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감수하고,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여



부동산학과
백성준 교수

“좋은 강의란
수강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생각했고 변했고 남아있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강의”

[Key word]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

1. 많은 학생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진다.
2. 수업시간에 처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치며 거리감을 좁힌다.
3. 내용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격려와 칭찬을 활용하고 수업 내용 자체도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교수자는 강의 내용 전달뿐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늘 기억한다.

부동산학과
백성준 교수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뒤늦게 대학강단에 서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관련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는데 그때 가장 마음에 와 닿은 글귀가 있었다. 이후 그것은 강의를 준비할 때나 진행할 때 내 기억에서 되살아난다.

“Teaching is not talking and Learning is not listening any more.”

내가 설정한 계획대로 정해진 일정 분량을 가르친 것으로 강의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무엇을 배웠고 생각했고 변했고 남아있는가가 진정 중요함을 스스로 되뇌곤 한다. 좋은 강의에 대한 정의는 이것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강의를 거듭 해오면서 강의내용의 효과적인 전달방법도 중요하지만, 더욱 소중한 것은 강의자의 과목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전달하는 것임을 느끼게

된다. 그런 면에서 도시계획론 과목은 내게 특별한 과목이다. 이 과목은 시간강사들이 맡아서 진행해 오던 과목이었기에 부담한 첫해부터 맡았다. 그런데 강의를 맡게 된 나는 정작 학부 수준에서 배워본 적이 없었다. 학부와 다른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하였기에 세부 각론 위주로 배웠을 뿐이다. 각론을 모으면 전체가 되겠지 하는 느긋한 생각으로 어렵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분야가 너무 방대하여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음을 금세 느끼게 되었다. 첫해의 강의 평가는 엉망이었다. 내가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2학기 개설과목이라서 여름방학이면 관련 서적을 읽고 도움이 될 만한 장소들을 답사해 보는 등의 철 이룬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렇다 보니 매년 연구실 서재에서 늘어나는 책 대부분은 도시계획 관련 책들이다. 독서삼매경에 빠져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해 갈수록 참 재미있는 과목이고 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과목에 애정을 갖게 되니,

자연스럽게 열의가 생기고 한두 가지라도 더 수강생들에게 느끼게 하고 보여주고 싶고 뭔가를 남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복춘 답사 현장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정확히 ‘도시계획론’이라는 과목으로 수강한 적이 없어서 다른 교수님들의 교수법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여러 해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매년 한두 가지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쌓이다 보니 스스로 교수법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차이점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다. 몇 가지 도입한 방법을 사례로 들고 싶다.

첫째는 수강생들의 본 과목에 대한 사전 지식과 관심도를 파악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시도들이다. 우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과목 소개와 아울러 다음 시간까지 작성해올 유인물을 나눠준다. 각자 지난 여름방학 기간 방문한 도시를 생각해 보게 하고 그 도시의 역사와 주요 현안 등에 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며, 기억에 남아있는 도시의 인상, 추억 등을 정리하게 한다. 그리고 ‘도시란 (무엇)이다’ 는 식으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그 이유를 적어 보도록 한다. 아울러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주요 현안이 무엇인지? 한 학기 동안 관심을 두고 찾도록 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말에 결과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도시에 대한 동영상은 충분히 활용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을 가보고 싶지만 직접 가볼 여력이 없어 동경만 하는 학생들의 갈증을 약간이라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마천루로 둘러싸인 뉴욕 록펠러센터부터 아시아 최대의 슬럼지역인 뭄바이 시의 다라비 공동체까지 수강생들의 호기심을 불러 넣어준다.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비교도 해보게 되고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대도시에 대한 이해와 문제들을 고민하고 미래도시에 관한 관심과 기대를 높일 수도 있다. 특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도시계획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꾸로 가는 도시’ 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뉴어버니즘, 어번빌리지를 가꾸는 영국 파운드베리와 미국 미들턴 사례를 보여준다. 스페인 빌바오, 일본 가나자와 등의 창의도시 사례, 도심복합 주거공간 창출을 통해 직주근접형 새로운 주택문화를 보여주는 일본 요코하마의 사례 등은 우리나라 도시와 도시민의 각박한 삶과 현실을 보게 하고 미래 도시를 구상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브라질의 새로운 수도인 브라질리아의 명(明)과 암(暗)은 우리나라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의 현주소와 비교가 되므로 관심도가 높다.

셋째, 독서 목록을 정해 소개하고 그 중 한 권을 택해서 독후감을 작성해서 기말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교재들만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을 독서를 통해 보충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정해진 한 권의 독후감이 아닌 여러 권의 독후감을 자발적으로 내기도 하고 제시된 10여 권의 책을 다 읽어 보았다며 더 추천해 줄 책이

요구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물론 억지로 숙제하듯이 내는 학생들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일을 평가해 보면, 내가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에 관해 좋은 책을 소개해 주어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은 학습효과도 좋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일부 책의 내용을 수업시간에 적절히 인용하면 독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미 해당 책을 읽어 본 학생들의 호응이 눈에 띄고, 그런 학생들의 수업 태도나 참여도도 높아진다. 게다가 다른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도 저절로 되어 상승효과를 일으킨다.

넷째, 서울시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답사를 진행한다. 운현궁부터 시작하여 북촌을 둘러보면서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먼저 본다.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에 있는 서울 도시모형영상관을 방문해 서울의 역사를 한 눈으로 둘러보고 넓은 서울 전역을 내려다보면서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을 느껴본다. 이후에는 상암DMC(디지털미디어 센터)를 방문하여 서울의 현재부터

미래의 모습을 조망한다. 당일 코스로 진행하는 답사라서 많이 걷고 바쁘게 움직이지만, 학생들은 무척 좋아한다. 북촌의 한옥마을이나 삼청동의 카페거리는 학교 근처에 있어 가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가본 사람이 적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수업시간에 소개받은 도시의 이론과 역사, 동양 도시계획의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본다. 그리고 나름의 소감과 견해를 기행문 형식으로 제출하며 뽐내기도 한다. 답사의 성공을 위한 팁으로는 늦가을의 경우 당일의 날씨와 시간을 고려해 코스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점심시간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포인트다. 주변의 맛집을 찾아 식도락을 느끼게 하는 것도 센스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된다. 이름을 모르거나 기억이 안 나면 "어이, 키 큰 학생" 처럼 부르게 되니 그것은 좀 멋쩍다. 하루의 시간을 들여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답사를 진행하는 것의 효과를 생각하면 더 자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Q3

수업 이외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먼저는 수강생들의 이름을 기본적으로 다 외친다. 따로 출석을 부르지 않아도 누가 수업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질문들도 개인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밖에서 마주치거나 답사를 가서 대화를 나눌 때에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는 것 같다.

둘째는 강의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칸을 마련하고 제출하게 한다. 성장배경이나 관심사, 진로준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책을 소개하거나 면담 시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딱히 자기를 소개할 것이 없다며





어색해하고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필요를 일러주고 면담시간 등에 지도를 한다. 저학년 때부터 자기를 평가해 보고 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것은 꼭 취업을 위한 준비로서만이 아니라 교육차원에서 자신감을 고양하고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비단 도시계획론 수업만의 필요가 아니라 모든 과목에 해당될

것이지만, 수강하는 학생들의 사전 지식이나 흥미도를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파악이 어려워 세세한 필요를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수업시간에 다루기 원하는 주제나 답사해 보고 싶은 장소에 대한 의견도 받아보는데 이를 반영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답사지를 바꾸는 일은 해당 학기에는 좀처럼 실천하기 어렵고 다음 학기에 가서 반영하는 편이다.

그리고 수강인원이 40명을 넘으면 많아서 답사 가는 일이 힘들다. 두 조로 나누고 한 조는 조교를 미리 잘 교육시켜서 답사 중간 중간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해보지만 충분치는 않다. 그리고 수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답사에서

최대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문하는 곳의 도움이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필요하다. 고정적으로 답사를 가는 기관과는 사전에 학교 차원에서 제휴를 맺어 두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주효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방문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학습과 인솔이 필수적이다.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르치는 과목에 관한 책임도 있지만, 우선은 내가 맡은 학생들에 관한 책임이 더 중하다고 여긴다. 일로서 강의를 할 것인지 사람을 세우는 관심으로 강의를 할 것인지가 판가름한다고 생각한다. 늘 일이 많고 분주히 움직이는 교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많은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여유는 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얼굴을 마주 대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한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대하듯 학생들을 상대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는데 내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서, 삼촌이 조카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는 나이 든 큰 형이 늦둥이 동생을 대하듯 학생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수업시간에 처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치곤 한다. “인사가 만사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먼저 인사한다고 입이 닳니? 목이 부러지니?” 하면서 잔소리도 곧잘 한다. 피곤하여 조는 학생들의 사정을 알지만 그래도 이름을 불러 직접 깨운다. 비록 썰렁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유머를 사용하여 잠을 깨우는 시도도 해 보고, 그래도 깨우기 어려우면 창문을 열어 환기도 자주 시킨다. 시원한 바람을 쐬고 오도록 밖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자식이고 조카라고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잔소리도 드는 것 같다.

그러나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도와주는 데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처음 부담해서 담당했던 다른 과목에서 느꼈던 괴리감과 충격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생각이나 수준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는 늘 모자람을 느낀다. 학생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잃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도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교수자의 주요 역할이라고 여긴다. 조금 힘들어할 때는 기죽지 않도록 격려해 주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도록 잘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강의실은 단지 교과서를 통한 지식의 전달공간만은 아니다. 강의는 교수자의 말, 표정, 몸짓 등 모든 것이 아우러진 총체적인 연극이요,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이라고 생각된다. 비록 한 강자이지만 전인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학생에게는 장래의 방향을 정해 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에게는 인생 선배로서의 롤 모델을 보여줄 수도 있다. 강의는 그리고 강의실은 창조의 공간이요, 소통의 장인 셈이다. 거기서 교수자는 때론 감독, 때론 배우, 때론 관객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작품을 다듬는 장인이 된다.

강의는 그리고 강의실은 창조의 공간이요, 소통의 장인 셈이다. 거기서 교수자는 때론 감독, 때론 배우, 때론 관객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작품을 다듬는 장인이 된다.





의생활학부
안현주 교수

“좋은 강의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강의”

[Key word]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

1.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2. 교수의 만족 보다는 학생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수업으로 이끈다.
3. 학생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4. 교수-학생 간의 마음의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의생활학부
안현주 교수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란 교수자의 일방적인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확히 원리를 이해하고 제작과정을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수업, 학생들 자신의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리를 이해하고 패턴제도, 시착, 보정, 심지고정, 봉제과정을 거치며 정확한 제작기술을 익히는 실습 위주의 교과목이다. 남성 테일러링은 남성 신체에 꼭 맞는 3차원적인 공간감을 기능적·심미적으로 제작해야 하므로 제작기술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기술을 익히는 데는 오랜 시간과 숙련된 고급 봉제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성 정장 제작에 대한 교육은 재킷과 바지를 만드는 기술을 전수하는 수업으로 진행되어왔다. (수업을 위해 특정교재를 선택하여 교재에 나와 있는 패턴을 제도하고 그 패턴에 따라 재단하고 봉제하는 일관된 방식을 취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수업 방식은 맞춤 정보보다 기성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현장 실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패션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으며 소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남성 정장을 제작하는 기술만을 훈련시키는 과거의 교육방식은

급변하는 패션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어물리지 않았다.

첫째, 남성복 패션시장에 대한 필요한 원.부자재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대량 생산과정 등 패션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이 밀받침되지 않는 수업은 졸업 후 진로와 무관하다고 생각되어 학생들의 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특정교재에 나와 있는 패턴을 그대로 제도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천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유연하지 못한 수업방식은 트렌드에 따른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진행했었던 “남성복” 과목을 예로 들어 과목 특성을 살린 교수법을 적어 보고자 한다.

남성복은 정통 테일러링의 구성





천을 재단하고 봉제하는 유연하지 못한 수업방식은 트렌드에 따른 디자인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패턴제도, 제작기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셋째, 남성복은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서 제작 과정 위주의 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진행되어 숙련된 봉제능력만을 요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크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남성패션시장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없었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패션디자이너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남성복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국내 남성복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내 남성복 대량생산 과정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실정에 맞는 패턴을 제작하고 활용방법을 익히며 그에 따라 남성 재킷과 팬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다.

(1) 남성복에 대한 이론수업 1

남성복 아이템의 이해, 수트의 종류와 디테일, 소재와 문양, 의류용어해설, 산업현장용어 등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관련된 자료화면으로 남성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내 남성복 시장에 대한 이론수업 2

국내 남성의 기성복 치수체계, 원.부자재에 대한 이해, 남성복 프로세스(디자인design-패턴제작 pattern making-그레이딩 grading-마킹marking-재단 cutting-봉제sewing 및 프레싱 pressing)에 대한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물 자료를 제시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익힐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 산업현장의 영상을 시연하여 남성복 생산과정과

국내 남성 패션산업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기성복 재킷과 바지의 구조 이해를 위한 실습

기성복 제품 중 재킷과 팬츠에 대한 복식 구조와 디테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템 해체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미 시판되었던 재킷과 팬츠를 그룹별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남성복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본인이 제작해야 하는 아이템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고 구조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분석 내용은 해체하는 복식의 도식화를 그린 후 제품 치수를 표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이름, 제조 일자, 사이즈 스펙, 세탁방법, 제품의 소재 등의 기초항목과 해체 후에 나타나는 안감부착 위치 및 상태, 심지 종류와 크기 등 부자재 일체를 상세히 기록하게 하였으며 해체과정을 사진을 찍어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패턴의 모양과 봉제과정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브랜드의 제품을 해체한 다른 그룹의 분석내용과 비교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브랜드별 제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4) 산업시장에 활용할 수 있는 패턴개발

기존 남성복 교재에 제시된 재킷과 팬츠 제작을 위한 패턴은 최신 트렌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실제 제작하여 완성하였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힘들어 제작한 재킷과 팬츠가 입고 다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유행하는 스타일을 따라가기를 원하였고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남성복 산업현장에서는 대부분 최신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제작과정을 취하고 있고 숙련된 기술자와 각종 봉제기구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산업패턴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신체에 맞는 패턴을 제도하는 방법과 제작기술을 처음으로 익혀야 하는 교육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본 교수자는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패턴 디자이너의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유행하는 트렌드가 적용되고 활용이 가능하며 남성복 교육에 유용한 제도법으로 재킷과 팬츠의 패턴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학생들은 트렌디한 라인의 재킷과 팬츠를 제작할 수 있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었다.

(5) 제작을 위한 실습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재킷과 팬츠의 제작과정을 진행하였다.

① 남성 재킷이나 팬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3차원적인 인체에 입혀질 옷을 평면의 패턴을 제작해야 한다. 원형 패턴의

그려지는 과정을 기초 선부터 단계적으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인체와 패턴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디자인 활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② 시범을 보인 후 학생들에게 각자 원형 패턴을 그리도록 하였고 패턴의 수정과 보정은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찾고 보완하도록 유도하였다.

③ 원형 패턴 제작 후 그 패턴을 활용하여 개인별 원하는 사이즈나 디자인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원하는 패턴 제작 후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은 단계별로 샘플을 제작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주차별로 적당한 제작 과정을 나누어 각 주에 이루어져야 하는 전체적인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그 후엔 일대일로 과정을 체크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과 함께 수정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였다.

“남성복” 과목은 남성복을 제작하는 과목으로 패턴과 구성이 무척 복잡하며 봉제기술이 어려운 매우 힘든 과정이다. 기존의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맞춤 정장의 기술을 전수하는 식의 수업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힘들지만 즐거운 수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오게 한 것 같다. 재킷과 팬츠의 구성원리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원 · 부자재부터 생산 프로세스까지의 생생한 내용을 제작실습과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수업이 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Q3. 수업 이외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남성복은 매시간 준비물이 많으며, 실습이 진행됨에 따라 체크하는 과제물이 매우 많다. 그래서 모든 연락사항은 SM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의 능력에 따라 수업 진행내용이 차이가 생겨난 부분과 과제체크는 일대일로 면담하면서 학생의 어려워하는 내용과 보충해 줘야 하는 부분을 설명하여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남성복 과목은 실습이 위주인 과목이라 이론수업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랜 기간과 노력으로 수집한 국내 패션산업현장에 대한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요약하여 정리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또한, 실습과정은 거의 일대일로 진행되고 매시간 학생마다 진행과정을 체크하고 보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교수자는 많은 시간을 이 과목에 집중해야 하고 적당한 시간조율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본 수업 준비에 앞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 ① 업그레이드된 남성 패션 트렌드 정보
- ② 트렌드에 따른 패턴 연구-현장에서 근무하는 패턴디자이너와의 인터뷰
- ③ 남성패션 산업현장의 원 · 부자재와 정보 등 관련 자료 수집
- ④ 업그레이드된 자료에 따른 제작실습과정에 관한 연구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산업현장에 직접 관련된

기초적인 이론을 전수함과 동시에
실제 착용 가능한 재킷과 팬츠를
완성도 있게 제작(실습)할 수 있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동시에
학생들에게 남성패션에 관련된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자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교수자가 만족하는 수업보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제
역할을 하여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학생이 만족해하는 수업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의 어려운 점,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을 하다 보면
자신감을 잃은 또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학생들이 많아
안타까운 적이 많았다. 학생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교수자와 학생
간의 따뜻한 마음의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며, 졸업 후 사회에 나가
바르고 좋은 사람,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수자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결과물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어야 한다.



의생활학부
윤진아 교수

“좋은 강의란
교수-학생 간의
소통과 공감이 있는 강의”

[Key word]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

1. 교수 자신의 학습내용지식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학생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또한 필수요건이다.
3. 교수자는 조연을 아끼지 않는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4.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 개별 맞춤형 교수 방법을 택해야 한다.

의생활학부
윤진아 교수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란 추상적인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가장 으뜸으로 꼽는 덕목은 바로 ‘학생과의 소통’이다.

교수는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은 무조건 교수의 수업을 이해하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 수업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된다. 학생과 교수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있어야 원활한 수업이 진행되고 학생들은 수업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에 맞춘 개별화 교육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여야 좋은 수업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업 시작 전에 그날의 수업내용을 명확히 제시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생과 교수가 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수업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다. 특히 실기수업 특성상 특정한 교재의 사용이나 필기시험과 같은 정확한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하는 수업과는 다르게 평가 기준에 대하여 학생들을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랐다. 한 학기에 3가지 아이템 즉 원피스, 슬랙스, 재킷으로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평가는 중간, 기말 두 번으로 정하여 진행했다. 이러한 방법만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도 생겨났고, 더욱이 남학생의 경우는 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기존수업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고급의복” 수업에서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였다.

(1) 학생 스스로 수업에 대한 선택권과 주도권 갖기

학생이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 수업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이외의 디자인과 소재 선택에서 학생들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아이템마다 꼭 배워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디자인은 착용하고 싶은 스타일로 정한 뒤 각자의 디자인 컨펌하기, 본인이 입고 피팅(가봉)하기, 소재 컨펌하기 등 좀 더 단계별로 세분화시켜 수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본인이 디자인한 옷을 입게 되어 수업 과정에 더 애착을 느꼈으며, 동기 부여뿐만 아니라 흥미 유발도 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2) 정확한 평가 방법 전달하기
실습수업의 특성상 자신의 성적에 의문을 갖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첫 시간에 출결사항, 평가기준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가) 출결사항 확인하기
늦어도 수업시간 3분 전에는 들어가 정확한 시간에 출결을 확인했다.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니

학생들도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교수의 출결확인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본다. 또한, 앞번호 학생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하여 뒤쪽이나 중간부터 출석을 부르기도 하여 호명 순서에 대한 안내를 통해 융통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제시하기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업성취의 목적을 높이기 위해 과제가 필요한 이유를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과제물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과제물 평가에 관한 규정도 알렸다.
예를 들면 기초과목이니만큼 매시간 진행되는 과제물에 대한 성실성을 강조하였으며, 과제물은 수업 시작 직전에 제출해야 하며, 수업을 시작한 후나 수업종료 후에는 과제물 평가에 감점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렸다.

또한, 매시간 과제에 대한 검사는 학업능률을 위한 것이며, 평가의 잣대라기보다는 다음 수업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상기시켜 충도 포기 없이 좀 더 많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수업 내용의 피드백

(가) 매주 과제 체크하기
과제가 수업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매주 과제를 바로바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의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실수한 부분이나 이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지도하였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평가는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게 하여 실수도 만회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나) 칭찬과 지적 병행하기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과 높은 학생에 대하여 차별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잘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칭찬하여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부족한 부분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려 하였다. 평가한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 동료 학생 평가 참여
학생들 간에 서로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과제와 다른 학생과 비교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하여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고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 수업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Q3. 수업 이외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 SMS 활용

이 수업은 수업시간 이외에도 학생과의 소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수업이다. 그러므로 SMS, 이메일뿐만 아니라 상담과 문의에 대해 연구실이 항상 열려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켰다. 또한, 질문은 언제든지 바로 답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결석이 잦은 학생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체크하고 출석을 독려하였다.

나. 선배로서의 조언

좀 더 많이 경험한 선배로서 현재 꼭 필요한 일들에 대한 조언을 쉬는 시간이나 면담을 요청한 학생들에게 해주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특정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 많은 학생들과 소통의 기회가 되지

않으므로 이제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학기 중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방문하여 상담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가. 학생 이름 외우기
본 수업은 매주 과제가 부여되고 그 과제를 체크 받아야 다음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이다. 그러므로 수업 시작 시 학생들이 과제를 들고 체크를 받는데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 서로 민망할 때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좀 번거롭긴 하지만 출석을 부를 때 한 명씩 얼굴을 확인하며





부르기 시작했고, 학생의 특징을
출석부에 표기해 두기도 했다.

나, 신조어(유행어) 따라잡기
요즘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모르는 말들이 많다.
무조건 표준어를 쓰라고

강요하기보다는 학생과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학생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신조어, 유행어 등을
알아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업을 즐겁게 만드는 양념적인
요소로 개그 유행어를 사용할 때도
있다.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좋은 강의의 3요소를
열정과 치밀한 준비, 관계라고
꼽는다. 좋은 강의를 하려는 열정을
가진 교수가 최선을 다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강의가 학생들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이다.

교수로서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내용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연하겠지만
학생의 이해와 학습 목표 달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우선 교수 자신의 학습내용지식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학생과의 돈독한
유대관계 또한 필수요건이다.

또한, 교수자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생 선배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수업에서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사회에서의 실제 경험을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조언하며 언제나 가까이 있는
선배로서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개성이 뚜렷하다.
특히 디자인분야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교수 혼자만의 고집스러운
강의, 주입식 교수법을 탈피하여
학생들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한 개별 맞춤형 교수 방법을
택해야 한다. 또한, 학생 본인의

진로나 개인 고민까지도 들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자상한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강의시간이 하루 중 학생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고,
학생들과 함께한 학기가 내게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길 기원한다.

[Key word]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

1. 한 학기 동안의 강의 진행에 있어 교안 작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열정이 묻어나는 강의를 진행한다.
3. 학생들의 가능성을 신뢰한다.
4.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역사문화학부
황혜성 교수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학문 분야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따라서 좋은 강의에 대한 답을 역사학을 포함한 인문학 분야로 한정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문학은 'liberal art' 이다. 즉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궁극적으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자신의 편협한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만드는 학문이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란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 이다. 즉,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거나 참여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역사과목의 예를 들어 보자. 만약 일방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사실과 지식만을 가르친다면 이는 죽은 강의이다. 반면 학생들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온 자취를 알아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도록 한다면 이는 좋은 강의이며 살아있는 강의일 것이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좋은 강의는 무엇보다도 교수의 열정이 묻어나는 강의이다. 내가 학창시절 들었던 강의 중 아직도 기억에 남는 강의는 교수님의 열정이 묻어나는 강의이다. 당시 한 노교수님은 명망 있는 석학이셨는데 그 선생님 수업은 정말 따분하고 재미가 없었다. 연구에 비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수하시는 데에는 크게 열정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한 교수님은 폭포수 같은 열정으로 강의를 쏟아내셨다. 역시 후자의 경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며 좋은 강의로 뇌리에 남아있다.

학생들이 교수의 열정을 느끼며 수업에 참여하게 만들려면 교수 스스로 가르치는 강좌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감해야 한다. 그러려면 충분한 리허설을 거쳐야 한다. 수업은 일종의 공연(performance)이기 때문이다. 교수는 공연자이고, 교실은 무대이며, 학생들은 청중이다. 감동적인 공연을 하려면 리허설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강의 역시 리허설이





리하설이 필요하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강의를 잡한다는 사람은 타고난 강연자 이외에 없을 것이다. 충분한 리하설이 좋은 강의를 만든다.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 존 웨일랜드(John W. Wayland)는 “사람은 자신이 들은 말은 시간이 지난 후 10% 기억하고, 자신이 본 것은 50% 기억하고, 자신이 한 일은 거의 90% 이상 기억한다” 고 말했다. 이 말은 수업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라는 나의 고민에 답을 주었다. 따라서 나는 가장 효율적인 수업방식은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하여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기본적 방침하에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1) 학생의 직접탐구 방식 추구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 수업을 예를 들어보자. 우선 첫 시간에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더불어 매주 다룰 주제를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그런 후 수강생을 몇 개의 조로 편성한다.

각 조는 매주 다룰 시대나 주제에 관한 신문을 만든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는 한 주에 1조씩 돌아가며 신문을 발표한다. 학기 말에는 그 신문을 모두 묶어서 조별로 제출한다. 이 방법은 우선 공동 작업을 통해 협동심을 길러주고, 자료수집부터 완성된 기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진 주제에 대해 미리 능동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이와 같은 교수 방식은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내용을 고스란히 기억하게 하는 큰 장점이 있다. 나의 경험을 말하자면, 70년대

대학교 강의는 주로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강의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셨다. 즉 수업시간에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당시 우리 조가 정한 주제는 단군신화였고, 나는 스크립트를 썼다. 그 때 한 과제로 인해 나는 여전히 단군신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2) 과제의 유연성
〈현대 미국의 이해〉 과목을 예로 들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서평, 저널 쓰기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즉 서평을 선택할 경우 미국 현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책 3권을 소개하고 그 중 2권에 대한 서평을 쓰게 한다. 저널 쓰기를 선택한 학생은 현대 미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제시해 준 12인 중 5인을 선택하여 한 권의 저널을 쓴다. 저널은 전문적인 학술논문과 에세이 중간 정도 성격의 글로서 각주는 생략하고 참고문헌은 달아야 한다. 이처럼

과제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선택하는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이다.

3) 예습의 중요성 강조

나는 모든 수업에서 복습보다는 예습을 강조한다.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온다면 수업 시간에 다루는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근대서양의 이해> 수업을 예로 들면, 우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룰 주제에 대해 매주 미리 생각하고 조별로 3개의 질문을 준비해 오도록 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먼저 준비해온 질문을 중심으로 20~30분 정도 토론을 진행한다. 이렇게 워밍업을 한 후에 강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강의 주제 중 중요한 세부주제에 대해서는 조별 발표 또는 개인 발표를 통해 보완한다.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에 대한 수업을 할 때면 레오나르 다 빈치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즉 강의는 총론이고 학생발표는 각론으로 서로 보완관계이다. 이 방법은 발표하는 학생이나 조에게 책임감을 갖게 만들고 충실히 준비하게 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

Q3.

수업 이외의 학생과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특별히 신경 쓰지는 않는다. 역사문화학부 홈페이지 수업 게시판에 통해 공지사항을 알리고 매주의 과제를 미리 올리게 하지만 학생과 교수의 만남은 우선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사문화학부의 경우 수업시간을 벗어나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매우 귀한 기회가 있다. 즉 매년 춘계,

추계답사를 통해 학생들과 유적을 돌아보며 3박 4일, 1박 2일 동안 함께 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때 학생들과 학업뿐만 아니라 인생, 진로 등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 간에 상호교감은 물론 두터운 신뢰감과 친근감이 형성된다.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수업 준비에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교안작성이다. 교안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강 전에 교안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우선 이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해하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고민부터 시작하여, 매주 강좌주제와 학생참여를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과제와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 과정이 제일 어렵고 신경이 쓰인다. 하지만 교안이 철저하게 준비되면 매 주 수업 진행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그리고 첫 시간에 교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줌으로써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이 수업을 어떻게 따라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나는 수업에 임할 때 농담처럼 “무대에 서는데 잘해야지” 라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내게 준 시간을 충실하게 공연해 주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지 수업 준비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 리하설을 안 하고 수업 들어간 날은 뭔가 불안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그걸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수업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주목을 계속 끌어야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집중력은 20분~30분이 지나면 떨어진다. 그러므로 학생들 표정과 반응을 잘 관찰하며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하고, 강의와 학생참여를 조화시켜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했듯이 교수는 일종의 공연자이다. 따라서 전체 수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하지만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이끌어 간다면 학생들은 관심과 흥미를 잃게 되고 오히려 강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교수는 학생들을 생각의 세계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역할, 미지의 세계를 향한 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니코 카잔짜키스(Nikos Kazantzakis)는 "이상적인 교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즉 학생들을 저 건너편으로 넘어가도록 이끌고, 넘어가는 도중에 행복하게 무너져 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

만의 다리를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교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특히 '행복하게 무너져 주어야 한다' 는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왜 무너져 주어야 할까? 그것도 행복하게... 이에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귀결되었다. 탐구하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귀결되었다.



하지만 이는 교수가 학생들을 신뢰해야 가능하다. 그래야 '행복하게 무너질 수 있는 다리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선생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능력을 믿고 안내하는 교수가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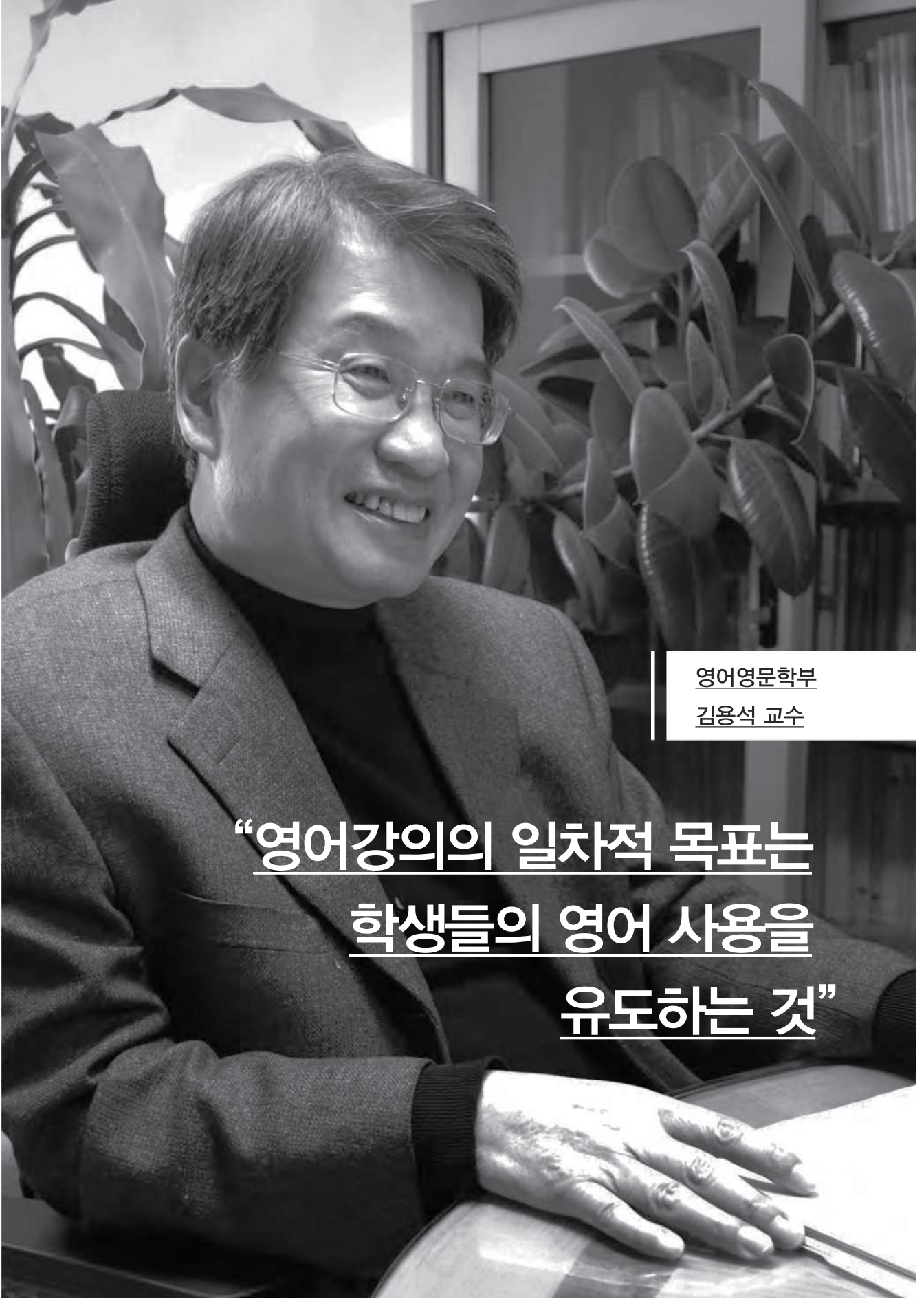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서 마음의 여백을 본다. 즉 한성대학교 학생들은 믿고 잘 안내하면 무한한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부

효과적인 영어강의 노하우
2012 MSU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 수료 후기

- 김용석 교수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 김일민 교수 -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 이병은 교수 -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 최경희 교수 - 예술대학 의생활학부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Professor Kim Yong-seok, a middle-aged man with glasses, smiling and sitting at a desk. He is wearing a dark turtleneck and a textured blazer. His right hand is resting on a book or paper on the desk. In the background, there are large indoor plants and a window.

영어영문학부
김용석 교수

“영어강의의 일차적 목표는
학생들의 영어 사용을
유도하는 것”

Q1 2012 MSU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의 주요 연수 내용 및 수료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본 연수과정은 영어의 원어민이 아닌
비영어권 지역의 교수가 전공강의를
영어로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
Montclair State University(미국 뉴저지
소재)에서 기획한 특별과정으로 본
명칭은 'Teaching in English (TIE)

program : An International Faculty
Advancement Program' 이며, 미국
현지에서 4주간(2012. 7. 9~2012.
8. 4) 진행되었다.
교육과정은 아래 [표1] 과 같이 총 7
개 과목을 개설하여, 참가자는
Group I에서 2과목, Group II에서 한
과목 등 총 3과목을 수강하도록
설계되었다.

그중 본인이 선택/수강한 과목은
아래 [표2] 와 같다.

본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추가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19:30~21:00까지 저명한 학자나
실무자를 초청하여 특별강의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견학을 하였는데, 그 주요과정을
정리하면 [표3]과 같다.

Group I	Group II
■ Essential Spoken English for Instructors ■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 ■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 Higher Education in America ■ Teaching through Technology and Innovative Practices ■ Writing for 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표1-2012 MSU Teaching in english program 교육과정]

시간	과목
08:00-10:30	■ Teaching through Technology and Innovative Practices
10:45-12:30	■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
13:30-15:30	■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15:45-17:45	■ 휴식

[표2-2012 MSU Teaching in english program 중 연수 신청한 과정]

특강 리스트	현장견학 리스트
■ Current Trends in the American Economy ■ American Elections and The Effect on Foreign Policy ■ Piano Traditions in American Music ■ The Evolution of American Theater ■ Musical Theater Performance- "Smokey Joe's Cafe" ■ Minorities and Diversity in American History ■ Current Trends in American Media ■ American Literature and Popular Fiction	■ Ellis Island and Statue of Liberty Field Trip ■ New York City Field Trip: United Nati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 Philadelphia Field Trip: Constitution Center ■ New York City Field Trip : Intrepid Sea, Air and Space Museum, Twilight Cruise

[표3-2012 MSU Teaching in english program 특강리스트 및 현장견학 리스트]

뿐만 아니라, 매일 점심시간이면 여러 교수진 및 교직원들과 연수 참가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다양한 주제를 정해 대화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한 마디로, 본 과정은 한 달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철저하고도 집중적인 교육이었다. 미국 현지에서 시행된 이러한 집중적인 교육의 덕택으로 영어의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의 향상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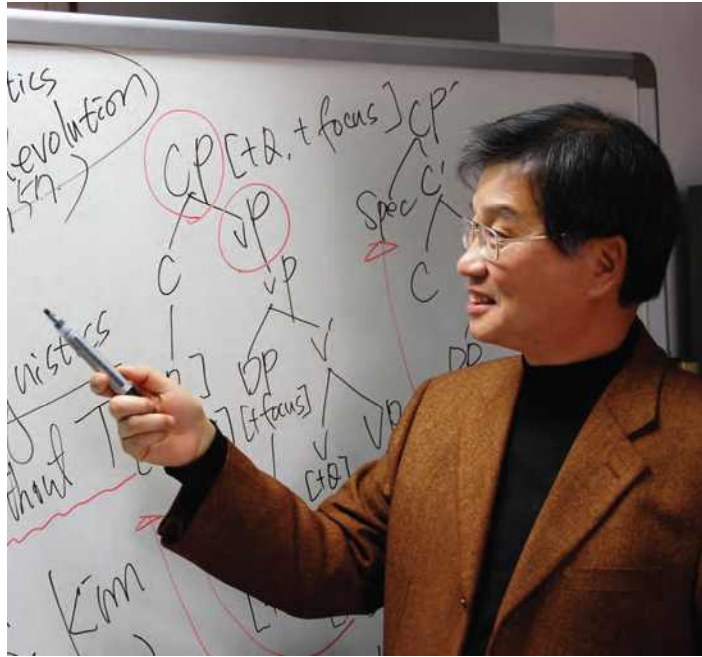
아니라 영어강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본다.



Q2

해당 프로그램 수료를
통하여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
(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Teaching tip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이 있었다면
어떤 것 입니까?

본인의 경우는 이미 30년 이상의 교육경험을 가진 교육자이므로, 이번 연수가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의 교육기법(teaching technology)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주었다기보다는 실제 영어수업을 진행할 때, 수업의 과정과 맥락마다 어떠한 영어표현을 사용하여 수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도움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인이 이수한 정규과목 중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의 과목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흠뜨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수가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면 교육 중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수업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함께 논의할 소그룹을 만들어 주며, 또한 자신의 명패를 각자의 책상 위에 놓게 함으로써 본인 신분의 확인과 상호 대화 시 상대방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다. 영어로 강의할 때 교수와 학생 간의 질문과 대화에서뿐만 아니라 학생 상호 간의 대화와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도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본인은 이번 학기(2012년 2학기)에 영어영문학부 실용영문법 과목을 영어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은 모두가 영어로만 질의, 토론, 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모든 학생이 자신과 함께 수업 활동에 참여할 자신의 짝을 갖게 하고 자신의 영어명패를 책상 위에 두게 함으로써 그룹 간의 토론과 훈련 시 상호의 이름을 자유롭게 호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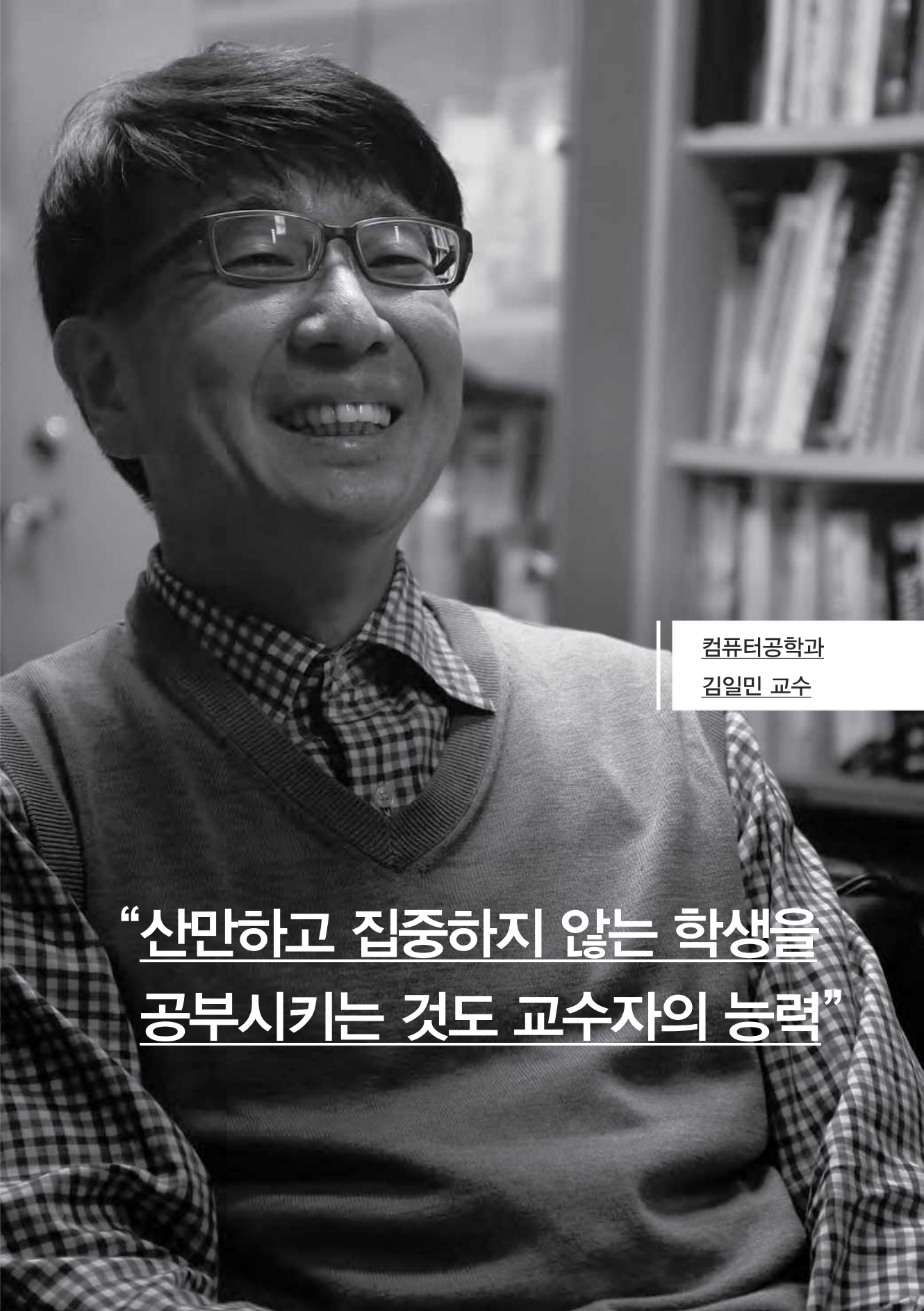


Q3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꼭 본 연수과정과 같은 외국 현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에 참여해 보도록 권유하고 싶다. 영어강의는 무엇보다 학생들 앞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의 자신감이 중요한데, 이러한 집중적인 연수과정을 통해 영어강의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비영어권에 있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많은 참여자가 함께 연수에 참여하므로 내가 그들에 비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영어강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가름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영어강의는 교수가 영어로 훌륭하게 강의를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학생들이 영어에 보다 익숙하고, 영어로 자기표현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도하는 것이 일차적인

영어강의의 목표이므로, 자칫 교수 혼자만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에 거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질의, 토론 시 반드시 학생들도 함께 영어를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 경우 학생들의 서툰 영어를 질책하거나 수정하려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컴퓨터공학과
김일민 교수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공부시키는 것도 교수자의 능력”

Q1 2012 MSU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의 주요 연수 내용 및 수료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2012년 7월 9일부터 4주간 Montclair State University (미국 뉴저지 몽클레어시 소재)에서 실시한 TIE(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월~목요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는 영어 작문과 영어 대화/발표 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주 1, 2회의 미국 문화, 정치, 경제에 관한 몽클레어 대학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뉴욕 맨해튼이나 워싱턴, 필라델피아와 같은 주변 도시의 역사적인 장소에 대해 탐방을 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른 아침 수업부터 야간 특강까지 다소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수들의 국적은 모두 3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국에서 19명, 한국(한성대학교에서 5명), 러시아에서 1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 참여한 교수진들은 모두 영어를 가르치는 lecturer이었으므로, 모두 영어에 능숙하여 본교 교수들과는 많은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한 결과이겠지만, 러시아나 중국 모두 한국어보다는 영어와 언어적인 구조가 동일해서 그런지 Free talking이 보다 자유스럽다는 점이 매우 부러웠습니다.

미국에 4주 동안 머물면서 영어를 학습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체험을 한

것은 향후 영어를 구사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영어를 4주간의 연수를 통해 능숙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영어에 관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이 몽클레어 대학에서 처음 시작하여 교육 준비와 경험이 부족하였으며, 교육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은퇴한 선생님들을 불러서 강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강의 품질이 낮았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학부생에게 강의해야 할 교육학의 기본 내용을 대학에서 강의한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때도 있어서, 강의자가 강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교육 내용을 설정하지 못한 느낌도 있습니다.

영어 강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한성대학교가 영어에 보다 능숙한 졸업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성원이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이 4주간의 짧은





Q2.

해당 프로그램 수료를 통하여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Teaching tip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이 있었다면 어떤 것 입니까?

기간이므로 영어 강의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은 많지 않더라도, 한성대학교에서 영어 강의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연수에 참가하였으므로, 영어 강의과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많은 젊은 교수들이 본 연수에 참가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학교에서 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교수자가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범위에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이 영어로 강의하는 것과 본인이 직접 강의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영어를 들을 때는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문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어순이 뒤죽박죽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본 연수 프로그램에서 많은 교정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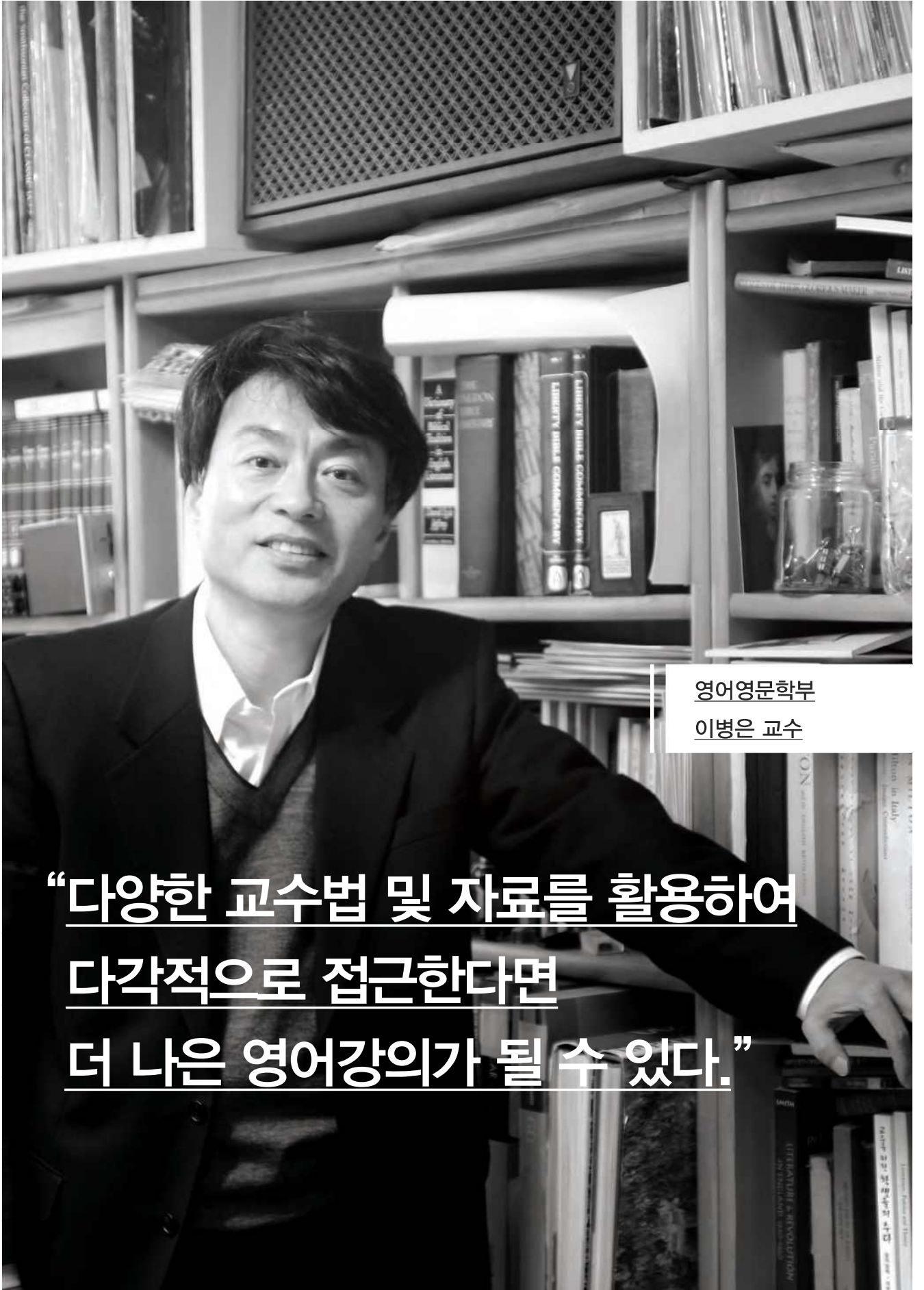
영어 강의 준비하는 교수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영어 원서를 독해하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몽클레어 대학의 특강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다음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학생의 능력이라고 내버려서는 안 된다. 강의는 학생들을 수업을 잘하도록 관리(management)하는 것이다. 산만하고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공부시키는 것도 교수자의 능력이다”



Q3.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영어 강의는 준비하기 어렵고,
본교는 교육 효과도 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영어를
잘하는 졸업생을 원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어강의를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교수님들이 용기를 내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부
이병은 교수

“다양한 교수법 및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나은 영어강의가 될 수 있다.”

Q1

**2012 MSU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의 주요 연수 내용 및 수료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뉴저지주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4주짜리 영어 강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어권 국가에서 전공을 영어로 강의하기를 원하는 대학교원들을 위하여 만든 영어 강의 교습법 프로그램이다. 이 글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장단점, 개선하였으면 하는 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앞으로 영어로 강의하려는 교원들을 위하여 몇 가지 생각한 점을 전달해보려 한다.

몽클레어 주립대학교의 영어 강의 프로그램을 위한 대학 측의 의지는 좋았다. 하루에 수업만 6시간, 1주일에 두세 번 열린 2시간짜리 특강들, 주말마다 있었던 투어 등은 일반 학생들이 다녀오는 연수에 비하여 절대적 강의 시간은 많은 편이다. 물론 \$4,500의 연수비가 싼 것은 아니나, 4주 동안의 1인실 기숙사비, 음식값 \$200 지원, 인근 도시 투어 비용을 고려하면, 아주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금액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Essential Spoken English for Instructors,"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Higher Education in America," "Teaching through Technology and Innovative Practices," "Writing for 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등이다. 일단 제목만

놓고 보면 잘 짜인 프로그램이다. 말하기, 쓰기의 영어 교육을 위주로 기본 계획을 잡고, 여러 교육적 기계 사용법, 미국 교육의 특징 등을 덧붙여 강의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을 위한 기획자의 의도는 좋았으나, 강의교수들이 급조된 느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교수들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물론, 행정가의 잘못도 있다. 먼저, 강의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 차이가 심하였다. 중국, 한국, 러시아에서 온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단 인원수를 채우기 위하여 신청자 모두를 같은 교실에 배치한 것은 교육의 기본 전략에 어긋났다. 하지만 강의교수들이 수강자들의 차이까지를 잘 고려하면서 철저히 교육하였다면, 의도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즉, 강의교수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위하여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전공을 영어로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수강자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강의하였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었을 것이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 저녁에 이루어진 특강으로 "Current Trends in the American Economy," "American Elections and The Effect on Foreign Policy," "Piano Traditions in American Music," "The Evolution of American Theater," "Musical Theater Performance-'Smokey Joe's Café'," "Minorities and Diversity in American History," "Current Trends in American Media," "American Literature and Popular Fiction"의 강의를 준비하였는데, 아주 훌륭하였다. 아마 이번 영어 강의 교습법



프로그램에서 가장 잘 기획되었고 시행되었던 특강이었다. 제묵처럼 미국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언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강의하였는데, 그들의 전문성이 돋보이고 기획자의 의도가 딱 들어맞은 좋은 강의들이었다. 다만, 강의자들이 참여자들의 영어 실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일부 참여자들에게는 너무 수준 높은 강의를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개인적으로 나쁘게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대하였던 것보다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교수로서 여름방학 대부분을 보낸 결과가 본인의 만족감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얻은 것도 많다. 먼저 모든 과정이 영어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일 영어에 노출되는 환경은 일단 영어에 대한 친숙함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또한, 저녁때의 특강은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여러 영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한 교양 향상도 있었다. 중국, 러시아 등에서 온 교수들과의 교류도 좋았고, 그들과의 계속되는 영어회화도 분명 내 영어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절대적 비교 우위는 미국 내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몽클레어 대학교는 주변에 아무런 시설도 없이 인근 마을과 동떨어져

있는 대학이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시간도 없었지만, 보낼 곳도 없는 교육시설이다 보니 영어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런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진행하였다고 가정하여 볼 때, 참여자들이 과연 그만큼 영어에 몰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현지 대학의 방학 중이어서 접할 수 있는 학생들 등 원어민들의 수가 적었지만, 겨울방학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면 원어민과 접할 기회가 더 많았을 것이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몽클레어 대학교에서 파견 나온 교수들이 국내 모 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고 한다. 영어 연수를 국내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는 장단점이 있겠다. 장점으로는 이번 여름 방학 때보다 좋은 교수를 몽클레어에서 파견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의 숫자도 분명 많아질 것이고, 순수한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운용한다면 영어의 집중력도 늘일 수 있을 것이다. 단점으로는, 지난번 몽클레어 대학교의 국내 프로그램은 수강하는 교수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결석이 잦고,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이해가 된다. 바쁜 교수들에게 우선권이 본인의 일정에 있었을 것이고, 연속성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일 수가 없다. 경비 면에서는 미국 진행 프로그램은 투어 등의 경비가 있었지만, 국내 진행 프로그램의 경우 몽클레어 교수들의 여행경비, 국내 체류 경비 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미국 진행의 경우가 저렴할 수도 있겠으니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Q2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여름

프로그램에서 얻은 가장 큰 점은 영어에 거의 24시간 노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집중적으로 영어환경에 있으므로 상당히 영어에 익숙해지는 효과를 보았다. 우리말과 영어가 교차하여 다가오는 환경보다 빠른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다. 가급적 국내에서도 기회가 되면 영어마을 등에서의 24시간 교육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에서의 연수가 집중 훈련의 효과도 있지만, 절대적 영어 교육 시간이 많다. 미국에서의 4주간 집중 영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아마 여러 개월의 교육 프로그램과 절대 시간이 비슷할 것이다. 국내 교수들이 예를 들어 4개월짜리 영어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 것이다.

이번 연수 중 만난 중국 교수 중에 영어 발음이 거의 원어민 수준인 교수들이 두 명 있었다. 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영어발음을 가지게 되었냐고 문의해 본 결과, 두 교수의 공통된 대답은 영어 따라 읽기였다. 즉, 적당한 영어 교재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흉내 내기가 큰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물론 두 명의 교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하였다고 한다. 최소 30대가 넘는 우리나라 교수들이 똑같은 훈련을 한다고 똑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꾸준한 영어발음 흉내 내기는 분명한 효과를 볼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과 비교하면 언어 습득 능력이 늦게까지 유지됨으로 여자 교수들에게는 무척 희망적인 시도임이 틀림없다.

어휘는 반드시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서 암기한다.

처음 보는 단어를 외울 때에는 반드시 소리 나는 전자사전이나 온라인의 사전에서 원어민 발음을 듣고 따라 읽으면서 단어를 암기해야 한다. 영어는 많은 경우에 철자와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발음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안다. 하지만 그 발음이 정확히 어떻게 발음되는 지는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강세의 위치도 틀리게 발음하면 원어민들은 신기할 정도로 못 알아 듣는다. 발음과 강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소리되는 지를 듣고 말하면서 외워야, 그 단어가 진실로 그 본인의 단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실제 상황에서 남들이 발음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리고, 자신이 발음할 때도 올바르게 되어 듣는 사람이 알아듣는다. 또한, 소리를 내어 외우는 경우, 소리가 뇌를 자극하여 암기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혼자 중얼거려기를 한다.

단어와 문장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그 말을 실제로 쓰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잘 알고 있는 말이라도 그 말을 내가 직접 입으로 말해보지 않으면, 실제 대화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처음 외국인을 대하였을 때 그 쉬운 “How are you?” 도 쉽게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내가 생각한 내용을 남에게 전달하는 훈련은 거의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원어민과 필요할 때마다 연습할 수 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여, 말하기의 준비 운동으로 평소 책 읽거나, 표현하고 싶은 내용을 소리 내어 중얼거리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도서관이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리로, 길을 가면서는 약간 들릴 정도의 소리로, 혼자 연구실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자기가 생각하는 아무 내용을 영어로 읊기면서 입으로 발성하는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 남과 대화하듯이 일상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된다. 자기가 중얼거리면서 연습한 말들은 실제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 남의 언어가 자신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제 발표 연습을 한다.

일상의 간단한 회화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는 있으나, 주제 발표같이 난이도 높은 말하기 훈련은 어렵다. 먼저 3분짜리 발표를 준비해본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영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여 영어문장 5~6개 정도로 발표 순서대로 정리한다. 그 문장을 이용하면서 3분 동안 혼자 두어 번 발표한다. 3분짜리를 여러 번 연습한 후, 차츰 5분, 15분 등으로 시간을 늘리면서 연습한다. 주제 발표 연습은 발표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말하기 연습 방법이다. 여러 명이 함께 주제 발표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표1-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

그 외 평소에 느낀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옆의 표에서 몇 가지 소개한다.

특히 마지막 방법은 지난여름 영어강의 프로그램에서도 효과 있게 연습 되었다. 여러 강의자들이 참여자들에게 발표 시간을 갖게 하였는데, 이 발표와 강의자들의 피드백은 참여자들의 한결같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강의 시간이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 몇몇 참여자들이 따로 모여서 발표 연습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대학

측에서는 강의실과 시설을 제공하였다.

영어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그저 꾸준히 하는 방법뿐이 없고, 다만 연수 등의 방법이 다소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여름 4주간의 연수 생활이 엇그제 같은데, 가을 학기 시작한 지 한참이고 벌써 겨울을 앞에 두고 있다. 이번 학기 영어로 강의하면서 학생들보다 오히려 내 영어 말하기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매주 영어강의를 하면서, 또

영어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는 영어 연습이 도움이 되나 보다. 역시 영어는 계속 해야 하는 공부임이 틀림없다.



의생활학부
최경희 교수

“다양한 교수법 및 자료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나은 영어강의가 될 수 있다.”

Q1

**2012 MSU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의 주요 연수 내용 및 수료
소감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Teaching in English (TIE) Program: An International Faculty Advancement Program으로 2012년 7월 9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미국 뉴저지주 몽클레어 주립대학

(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Global Education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이 코스는 총 8명의 코스 담당 교수와 7명의 특별강연 초청 연사, 그리고 한국 5명, 중국 20명, 러시아 1명, 총 26명의 참가자로 구성되었다. 본 TIE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영어권 국가의 대학교수 및 강사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히 영어로

강의하는 비영어권을 위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인 만큼 영어 교수법 및 언어기술에 대한 집중 훈련 코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은 다음 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7개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는 코스웍과 특강, 그리고 주당 1회씩 제공된 현장수업과 점심시간을 이용한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구분	시간	내용
코스 courses	매주 월요일~목요일 8:00 am ~ 5:45 pm	Group I courses ■ Essential Spoken English for Instructors ■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 ■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Academic English Writing Skills for Natural and Applied Sciences Group II courses ■ Higher Education in America ■ Teaching through Technology and Innovative Practices ■ Writing for Presentation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중, 2과목(Group I), 1과목(Group II) - 총 3과목 선택
특강 Forum guest lecture	매주 약 2회 7:30 pm ~ 9:00 pm	■ Current Trends in the American Economy ■ American Elections and The Effect on Foreign Policy ■ Piano Traditions in American Music ■ The Evolution of American Theater ■ Musical Theater Performance- "Smokey Joe's Café" ■ Minorities and Diversity in American History ■ Current Trends in American Media ■ American Literature and Popular Fiction
현장수업 Field trip	매주 금요일	■ Ellis Island and Statue of Liberty Field Trip ■ New York City Field Trip: United Nation, Metropolitan Museum of Art ■ Philadelphia Field Trip: Constitution Center ■ New York City Field Trip : Intrepid Sea, Air and Space Museum, Twilight Cruise
점심토론 lunch discussion	매주 월요일~목요일	■ 여러 교수진 및 교직원들과 참가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다양한 주제로 대화 및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영어연습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표1-2012 MSU Teaching in english program 주요구성]

본 프로그램은 위 [표1]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주최 측에서 다양한 과목의 선택 기회와 더불어 학내 학습과 재미를 곁들인 현장학습을 겸하여 수업과 문화적 측면에서 교육적 효과를 주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국적 참가자들 및

해외대학 간의 파트너십 강화라는 점에서도 도움이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TIE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게 비영어권 교수 및 강사가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전공과 영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법 및 효과적인 실습기회 제공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향후 재고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SWOT 분석은 [표2]와 같다.

Strength	Weakness
■ 다국적 참가자들(ex, 중국-베이징과 상하이, 러시아, 한국)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 및 수업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영어 사용이 용이함 ■ 정규 코스 이외에도 특강과 field trip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관한 토론 및 체험 기회 제공 ■ 일정 기간 특정 공간에서 진행된 합숙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기간 중 타 업무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아 집중도 향상 ■ 다양하게 구성된 코스로 인한 선택 기회 부여 및 특히 listening 연습 기회제공(그러나, 이는 동시에 speaking 중심의 집중적인 영어강의 실습기회 부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함) ■ 국내외 참가자들과의 4주간 연수과정을 통한 친밀도 증진과 정보교류의 장 제공 ■ 다양한 교과목 중 몇몇 성공적인 코스(ex,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코스, 교수법 관련 코스 등)들은 향후 프로그램의 발전 가능성 제시	■ 다양한 참가자들의 니즈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으로 인해 이에 부합한 코스 개발 미흡 ■ 참가자들의 니즈와 인원수를 고려한 분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speaking의 기회부족 ■ “Teaching English”가 아닌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이므로, 영어 자체에 대한 교습보다는 영어강의 교수자에 적합한 집중적인 “실습기회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다소 벗어남 ■ 단기적으로 습득 가능하며 영어강의에 직접 필요한 방향설정 및 내용 미흡(ex, 본국에서 사용 가능한 테크놀로지 제한 필요 등) ■ 비영어권 교수와 학생들의 영어 강의에 대한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러한 점을 고려한 효과적 교수법 제안 등이 부족(ex, 한국인이 영어강의를 할 때 특히 필요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집중 컨설팅 등) ■ 비영어권 대상 영어 교수법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 부재 ■ 원활하지 않은 교통 시스템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고립감 강화 및 문화체험 기회 축소
Opportunity	Threat
■ “Teaching in English”라는 본 프로그램은 국제화 추세 및 현재 한국에서의 영어강의에 대한 높은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임 ■ 다국적 Faculty 참가자들과의 향후 국제 교류의 가능성 부여 ■ MSU와 한성대 간의 관계 증진을 통해 향후 교수 및 학생 교류에 기여 ■ 한성대 영어강좌 비율 증진을 위한 좋은 기회제공	■ 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높은 추가비용 문제 ■ 현행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성대의 개인당 교육비 투자 대비 기대효과와 부실 가능성 초래 ■ 4주간 집중 교육프로그램 이후, 지속적인 영어 연습 환경 부재 ■ 한국인 교수에 의한 전공영어강의의 장단점 분석 및 문제점 보완대책의 부재 (내용 전달력, 집중도, 학생 영어능력향상에 대한 기여도 등)

[표2-2012 MSU Teaching in english program SWOT분석]

2012 TIE 프로그램은 최초로 시행된 몽클레어 주립대학 내에서 진행된 프로그램(Teaching in English in Mondclair)으로 몇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본교 영어강좌 비율 증진을 위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속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Q2. 해당 프로그램 수료를 통하여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진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Teaching tip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이 있었다면 어떤 것 입니까?

수강한 코스 중, 특히 Methodology of Teaching in English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 몇 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eaching strategy에 있어서 Think-Pair-Share를 고려해서 스스로 사고와 공유방식을 통한 수업방식의 유도가 있으며, 그 외에도 Small group problem solving 방식, 수업 중에 대담을 회피하는 학생들을 위한 Signalled response(ex,

Signalled response(ex, thumb up or down), Pop quiz, Discussion 등이 있었다. 둘째, 비영어권 학생들에 대한 영어강의에서 모국어와 영어의 2개 국어의 사용을 통한 수업시간의 불안심리 제거와 편안함 유도가 필요하며, 전공영어수업에 대한 학생 참여를 위해 예습용 reading list를 만드는 것이 도움된다. 셋째, 교수의 수업방식에 있어서 요구되는 3가지 자질은 Lesson organization, Communication, Motivation 기술이 있다. 넷째, 대학수준의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것, 다양한 활동들로 강의를 여러 개의 소단위로 나누는 것의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내용선택에 있어서는 강의의 핵심 찾기, 이전 수업과의 연결고리 찾기, 다양하고 흥미로운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재선택, 적절한 예시 등이 있고, 두 번째 논리적으로 내용 설명하기에는 짧은 이야기 방식, 구체적인 예, 비유, 시각적 자료의 사용 등이 있으며, 세 번째 다양한 활동 중에는 수업을 작은 팀으로 나누는 것, 강의의 핵심을 종이에 요약하도록 하기, 브레인스토밍 훈련, 퀴즈 보기,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게 하기,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가거나 생각할 시간을 주기, 1분간 쉬는 시간 부여하기 등이 있었다.

그 외에 Essential Spoken English for Instructors 코스에서는 분반의 부재 및 교수의 교수법 등으로 인해 speaking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모자랐으나, 교수의 토론 유도 방식이나 다양한 매체 혹은 역할게임으로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한, 다양한 외부 게스트 특강이나 공연, 점심 토론

등은 영어의 일상생활화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방식의 영어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Q3. 향후 영어강의를 준비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어강의를 영어 자체에 대한 교육이 아닌 전공을 영어로 하는 강의로 간주해 볼 때, 이는 근본적으로 한국어로 된 전공강의방법과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교수법에 대한 숙지와 실제 강의를 통해 터득한 노하우는

영어강의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언어가 영어일 경우에는 학생들의 집중도가 한국어 강의에 비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수업의 핵심을 다양한 방식, 특히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반복해주고 수업의 난이도와 양을 줄이며 쉬는 시간의 비중 또한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어강의에서 영어는 수단일 뿐이므로, 학생에게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에서 필요할 경우 영어강의 내 한국어의 비중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영어강의는 학생들이 수업내용을 미리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경우 관심 유발 효과가 있으므로 예습을 통한 매시간 퀴즈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통상적인 한국어 강의에서도 요구되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더 있을 것이며,





대학 및 여러 기관을 통해 여러 교수님에게 이러한 교수법을 접할 기회를 확충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영어강의를 희망하는 교수는 영어강의 교수법 또한 반드시 숙지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비영어권 교수가 비영어권 학생에게 전공을 영어로 강의할 경우 한국어 강의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향후 이번 TIE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이 대학 내외에서 더욱 장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한성대에서의 영어강의 장려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분	제안점
1. TIE in Montclair 프로그램 관련 사항	■ 다국적 참가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토대로 이에 부합한 소규모 분반 코스 개설, 특히, 영어 자체를 교육하는 참가자와 영어로 전공을 교육하는 참가자의 분반이 필수적임 ■ “Teaching in English” 프로그램의 목적에 걸맞도록, 영어 자체에 대한 수업보다는 참가자들이 향후의 영어강의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speaking 중심의 집중코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별 피드백 필요 (ex. 발음 교정, 영어강의 교수법, 강의 시 유용한 표현 등) ■ 영어강의 실습 코스를 위해 1~2과목으로 구성된 집중코스가 적합하며, 이미 영어강의를 실행하고 있는 참가자와 앞으로 이를 실행할 참가자별 분반 지도 필요 ■ Academic Writing 수업도 실제 학술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journal이나 article 등을 위한 실습과 교정을 중심으로 실행되어야 함. ■ 비영어권 대상 영어 교수법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반드시 필수적임. 특히, 비영어권 교수와 비영어권 학생들로 구성된 영어 전공 수업에 효과적인 교수법 컨설팅 요망 ■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스 진행에 따른 약간의 강제성 강화 필요 (ex. 출석, 과제, 발표 등) ■ 코스 중간 혹은 최종에 진행되는 참가자들의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할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peer teaching의 기회 제공
2. TIE on Hansung campus 프로그램 시행	■ 현행 TIE in Monclair 프로그램의 문제점 해소 및 대체방안으로, 한성대 캠퍼스 내에서 진행되는 TIE 프로그램(TIE on Hansung campus)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음 ■ 이미 이를 수행해 본 Beijing Jiaotong University의 성공사례와 단국대의 사례에 관한 사전조사 요망 ■ TIE on Hansung campus의 경우, TIE in Monclair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많은 교강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한성대로 교수진을 유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용할 때 참가자들의 출석률이 저조한 문제를 사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학내 후속 연결 프로그램 시행	■ 영어강의를 수행할 참가자들이 지속해서 영어(강의)를 연습할 수 있는 학내 프로그램 개발 요망 ■ Ex. 교내 원어민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체 TIE 프로그램 개발, 교내 원어민 교수와 영어강의를 수행하는(혹은 관심 있는) 교강사들로 구성된 동호회나 스터디 그룹 조직
4. 타영어권 국가 및 타영어 교육기관의 유사 프로그램 탐색	■ 몽클레어 주립대학 외에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영어권 국가들을 포함한 여러 대학 및 기관들의 프로그램 탐색을 시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영어교육기관 선택 기회 확대
5. 영어강의 및 국제교류위원장 선정	■ 본교 영어강좌의 비율 확대 및 TIE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학내 대표자 선정 ■ 특히 TIE 프로그램 참가 경험이 있거나 영어강의 유경험자로, 잠재적인 제반 문제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는 교수
6. 영어강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	■ 학내 영어강의 활성화를 위해 위 TIE 프로그램뿐 만 아니라, 교육업적, 강의평가, 상대평가 비율 등 다양한 관련 규정 개정 필요

[표3-향후 한성대에서의 영어강의 장려방안 제안]

한성대학교 교육개발연구원

프로그램 안내

- 교수지원 프로그램
- 학습지원 프로그램

1

교수지원 프로그램

(1) 신입교수연수

시기	6월, 12월
대상	임용 후 3년 미만의 신입 교수
내용	신임 교수에게 교수의 역할과 효과적인 교수(Teaching) 방법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대학수업의 질적 향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2) 교수법 워크숍

시기	연중
대상	전체교수
내용	교수법 전문가를 통하여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최신 교수법을 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교수(Teaching) 방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함.

(3) 강의컨설팅

시기	학기 중
대상	전체교수
내용	교수자의 실제 강의를 촬영한 후 외부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교수 스스로 강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함.

(4) 교수법 소책자

시기	연중
대상	전체교수
내용	우수강의자 및 전문 교수법 프로그램 연수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Teaching)활동 및 학생지도에 대해 인터뷰한 후 이를 자료화 하여 교수자 간 강의 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2

학습지원 프로그램

(1) 한성튜터링

시기	매 학기
내용	특정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선행학습자 혹은 전공성적이 우수한 또래 학습자가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와 팀을 이루어 공부하는 학생 주도 협동학습 프로그램.

(2)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시기	매 학기
내용	외국인 유학생과 본교 재학생이 1주일에 4시간 이상 만나 학교생활 안내 및 기초 학습을 돕는 프로그램.

(3) 학습전략검사

시기	매 학기
내용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전략검사를 시행하여 현재 본인 학습활동의 보완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더 나은 학습전략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

(4) 학습법 노트

시기	연초
내용	학습활동에 최적화된 노트를 개발하여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활동을 도움.

Hansung Educare

제 1호



발행처 한성대학교 교육개발연구원
발행인 노재혁 (교육개발연구원장)
담 당 서지우
편 집 김가희
디자인 김민수

주소 :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교육개발연구원
Tel : 02-760-5816
E-mail : hanctl@hansung.ac.kr
Homepage : www.hansung.ac.kr/~ctl

발행일 : 2012.12